

# 세계최초 싱글섹션제병기 개발

##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체계긱췌

포장용기 중 유리병은 내용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고,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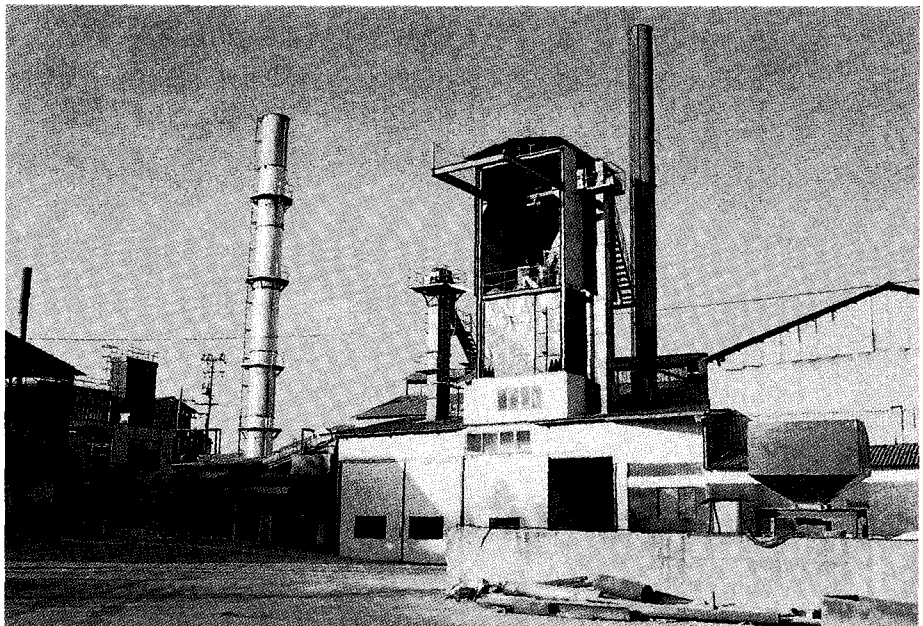
반면, 무겁고 깨지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는 유리병은 최근 업계에서 경량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화학적 구조에 대한 개선을 통해 깨지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 포장용기로써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영일유리공업(주)은 IMF의 어려움에도 유리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중

견업체이다.

최근 세계 최초로 싱글섹션제병기를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한 영일유리공업(주)은 1975년 수동제병업체인 영일유리공업사로 출발해 1988년 자동제병업체로 거듭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영일유리공업(주)이 개발한 싱글섹션제병기는 반자동기계를 영일유리공업(주)의 현황에 맞게끔 제작·개선한 것으로 금형의 교환시간을 최소화해, 영일유리공업(주)처럼 다품종 소량 및 정량 생산을 하는 업체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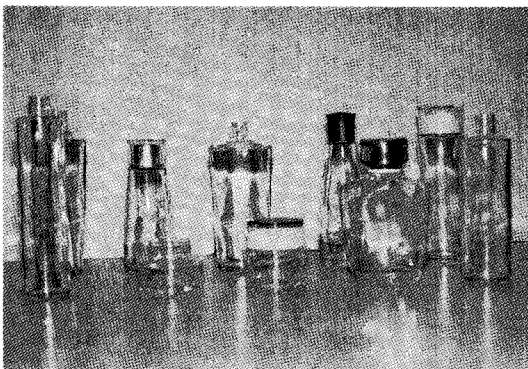


▶ 영일유리공업(주)의 본사 및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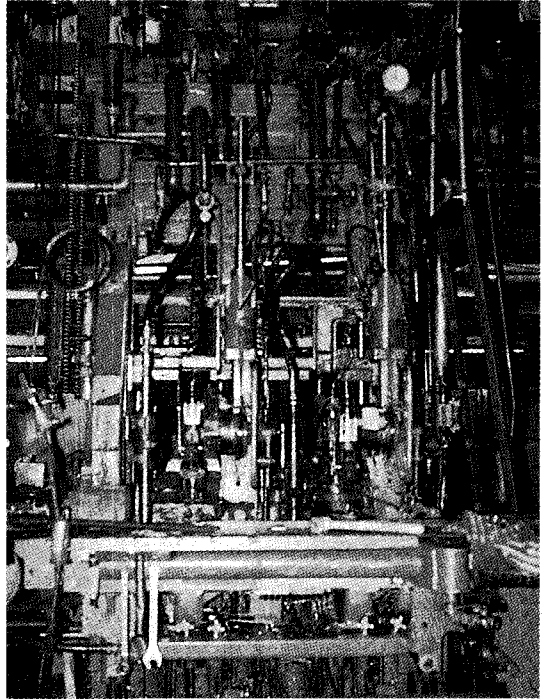
“75년, 입으로 불어 유리병을 만드는 수동제 병업체로 출발해 반자동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 자동제병업체로 거듭났습니다”라며 영일유리공업(주)의 지나온 역사를 짧게 설명하는 고영일 대표이사는 유리업체에서만 45년의 경력을 가진 유리공정의 달인이다.

수동으로 유리병을 만들던 당시 한국최초로 OB와 진로, 백합 브랜드의 양주병을 개발하기도 했던 고 사장은 자동제병업체로 거듭나면서 대부분 대량생산을 하는 통념을 깨고 국내 최초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노하우는 지난 해 IMF의 어려움 속에서도 큰 부담 없이 영일유리공업(주)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싱글섹션제병기에 대해서도 “저는 오직 품질 좋은 유리병의 생산만을 목표로 45년여를 보낸 사람입니다. 유리병 생산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전제를 두고 그동안 사용하던 반자동기계를 영일유리공업(주)의 현황에 맞게끔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 영일유리공업(주)이 생산하는 유리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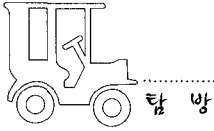


▲ 영일유리공업(주)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싱글섹션제병기

현재 한 섹션에서 다양한 품종의 유리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싱글섹션제병기에 대한 수출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 사장은 “영일유리공업은 유리병을 만드는 병회사이므로 기계에 대한 수출문의는 공손히 거절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기술수출에 대한 문의에도 그 기계에 대한 노하우는 영일유리공업(주)이 생산하는 유리병의 품질을 높이는 노하우이므로 더군다나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싱글섹션제병기를 개발함으로써 영일유리공업(주)은 자체적으로 금형 및 수량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므로 좀더 다양한 종류의 병을 생산할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또한 영일유리공업(주)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납기준수에도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영일유리공업(주)의 주생산품목은 화장품병인데 태평양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업체에 대부분의 수량을 납품하고 있다.

“국내 화장품시장 중 70% 정도의 업체에 저희 유리병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라는 해외영업 담당 김선광씨의 말처럼 이는 모기업이 없는 업체로써 그만큼 질 좋은 유리병을 정확한 기간에 납기하는 영일유리공업(주)의 노하우가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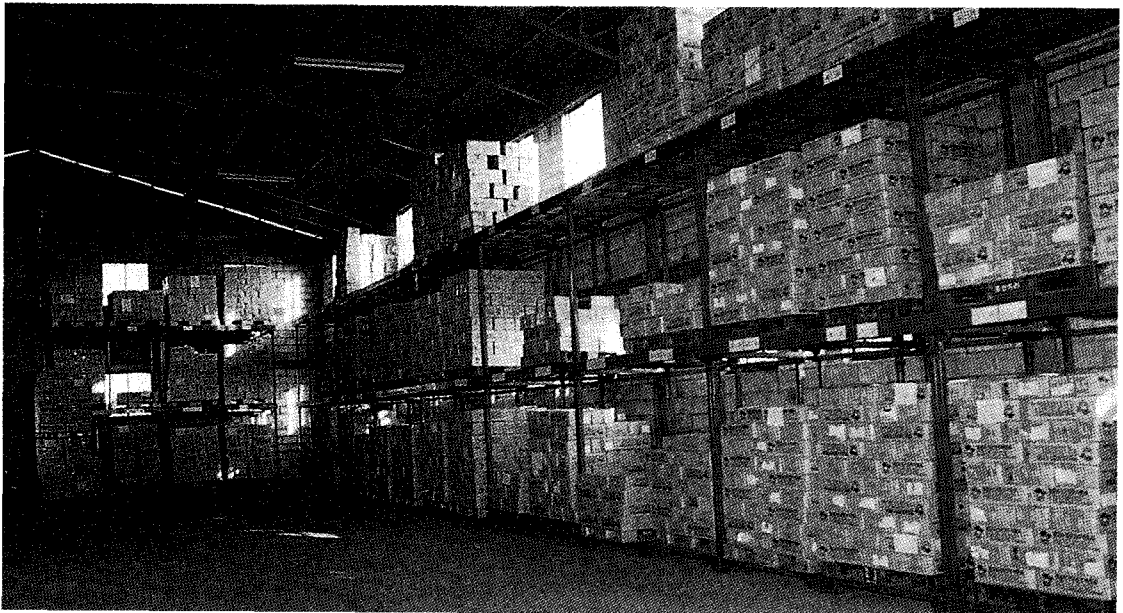
현재 영일유리공업(주)은 일본의 시세이도 화장품사를 중심으로 전체 생산량 대비 5%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오는 6월부터 진행할 공장 증축을 계기로 수출의 비중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체 80여명의 임직원이 영일유리공업(주)의 탄탄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 사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분야인 유리병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1인3역도 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일유리공업(주)의 유리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독려는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외부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들이 참여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일유리공업(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체 금형제작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 이 역시 다 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영일유리공업(주)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고 사장의 경영방침에서



▲ 영일유리공업(주)이 생산한 제품들을 적재하는 제품창고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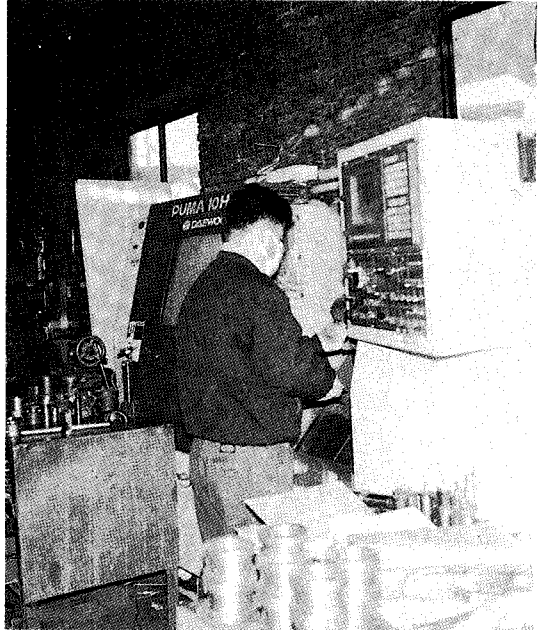
이 금형제작실에서는 영일유리공업(주)에서 생산하는 유리병에 대한 모든 금형을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실험을 하고 있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금형제작실을 보유함으로써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생산공정상의 효율성도 꺾할 수 있어 영일유리공업(주)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발맞추어 화장품병의 품목들도 다양해지면서 영일유리공업(주)의 생산품목도 늘어나자 관리부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됐다는 고 사장은 앞으로 영일유리공업(주)이 생산하는 전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진열체계를 갖춘 품질관리 창고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유리병이 출하될 수 있도록 회사전체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리병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쉽게 깨지는 유리병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영일유리공업(주)은 온도조절능력과 생산기술을 높이는데 주력해 유리병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생산재료의 성분배합과 작업공정의 조절을 통해 경량화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라는 고 사장은 현재 1m 높이에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유리병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기존의 선입견에 묶여 유리병을 깨지기 쉬운 불안정한 포장재로 오인하는 것 같아 유리병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 영일유리공업(주)이 자체적으로 갖춘 금형제작실

한 때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의 사회적 비중을 경시하며 ‘장인’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IMF를 지나며 생산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기술자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당연한 것임에 분명하다.

자신이 이룬 어떠한 업적도 오직 유리병생산 외에는 연관지어려 하지 않는 고영일 사장과 그의 이러한 경영방침에 동의하며 고품질의 유리병생산만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영일유리공업(주)의 직원들을 보며 우리 시대 장인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

윤지은 기자